

# 새 천년의 시작은 200년, 21세기의 시작은 2001년

(주)시스코프/대표이사 여인갑

**1** 999년 초부터 논란이 되었던 화두는 20세기말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연설을 시작하는 연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21세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는 2000년부터 21세기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 것처럼 말하는가 하면, 어떤 연사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의미에서의 세기말 논쟁을 끄집어 내면서 21세기는 2001년부터 시작입니다. 혹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부터 21세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입니다. 하고 의기양양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연사도 많이 있었다.

..

1899년에도 세기말적 혼란은 사람들을 무척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 때는 새 천년의 시작이란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1899년이 세기말이라 하여 한목 보고는 1900년에도 세기말이라 하여 또 한번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가며 장사의 재미를 보았던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이러한 혼란이 백년마다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0이라는 숫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아이러니가 숨어있다. 중세 수도사들이 0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었다면 새로운 세기가 00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01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세 수도사들이 수학을 공부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손꼽을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기도 때문이었는데 수도사들이 언제 어느 때 기도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들은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돈 때문이었는데 현금을 얼마나 거두었나를 세기 위해서 그들은 주판이나 계산책 또는 주판과 비슷한 계산기능을 갖는 도구들, 심지어는 돌맹이를 책상위에 늘어 놓으며 계산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기도하는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수도사들은 시간을 계산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기도할 사람을 정해 놓고 바톤타치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지루한 낮 시간이나 특히 밤 중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정오를 뜻하는 영어의 noon이란 단어의 어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none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낮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다.

특히 부활절 축제를 열기 위해 정확한 부활절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은 정확한 달력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달력이 병존했기 때문에 어느 달력에 근거한 부활절이 정통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로마의 카톨릭교는 당연히 로마 달력을 사용했는데 로마력은 365일을 일년으로 하는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활절의 주인공인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유대 나라는 동양의 음력과 같이 달을 기준으로 하는 1년의 기준이 354일인 유대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도 이러한 수도사 중의 하나였다. 6세기에 교황 요한 1세로부터 앞으로의 부활절 날짜를 계산해 보라는 명을 받은 그는 연구 끝에 예수의 탄생연도를 계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년도를 예수 탄생 후 525년이 된다고 하여 525년으로 정하고 예수가 탄생한 해를 주후 1년 (1 anno Domini)라고 하였다. 사실 그는 예수가 12월 25일에 탄생한 것을 알았지만 로마 달력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AD1 라 하였고 그 다음해는 AD 2, 다음해는 AD 3 하는 식으로 계산해 나갔다.

이렇게 해서 로마달력과 유대달력을 일치 시킨 새로운 달력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두개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 첫번째는 예수의 탄생년도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탄생을 박해하여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왕이 죽은 해가 역사적으로 BC 3이었고 따라서 예수는 BC 4년에 태어난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디오니시우스의 달력에 0이 없었다는 점인데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디오니시우스가 계산한 부활절 날이 거의 바닥이 날 무렵인 731년에 영국 북부에 있던 수도사 베테가 그 이후의 부활절 날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디오니시우스의 계산 작업을 검토하다가 AD 1과 BC 1 사이에 0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즉 .. -3, -2, -1, 1 2 3 ..으로 연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1세기를 100년으로 본다면 1부터 100까지를 계산하여야 1세기가 되고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해이고 21세기의 시작은 2001년 1월 1일부터라야 맞는다.